

예술 꿈나무들 무대...학생부터 지역민까지 함께한 대축제

호남예술제 70년

〈2〉발자취

호남예술제의 70년은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클래식, 미술, 문학, 무용, 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 넘치는 꿈나무들을 발굴해왔다.

1956년 6월 13일, 동방극장에서 열린 제1회 호남예술제는 지방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결선 날엔 극장 밖까지 관중이 몰리는 등 한마디로 시민축제의장이었다.

2회부터는 부통령상이 신설되고, 각 분야 권위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대회의 위상이 높아졌다. 특히 아동극 부문인 동극 경연은 지역 연극 발전의 토대가 됐다. 5회 대회에서는 중·고등부가 신설되며 행사의 외연이 확장됐다. 당시 보도는 '성인 못지않은 솜씨를 지닌 청소년들의 무대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1961년 4·19 혁명 1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됐던 6회 대회는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6월에서 11월로 연기되며 격변의 시대를 함께 겪기도 했다.

8회 대회에 이르러 참가자는 4000여명에 달했고, 광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시가행진과 함께 명실상부한 시민 축제로 자리 잡았다. 남원 농악대와 학강국민학교 밴드의 흥겨운 연주에 맞춰 전남여고 강당에서 출발한 행진은 충장로, 금남로를 거쳐 경연장을 향했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예술 꿈나무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10회 대회부터 음악, 판소리, 민요 등 전통 예술 장르가 대거 확장됐고, 15회 대회부터는 주부백일

아동극·음악 등 5개 종목으로 시작 실용음악·만화·일러스트까지 신설 공설운동장 개막식 10만명 몰려 시가행진·불꽃놀이 등 시민축제로 80년엔 10월로 연기, 중단없이 진행

장, 가요 콩쿠르, 농악 경연, 가장행렬이 새롭게 도입됐다. 특히 광주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른 아침부터 약 10만 명의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각 학교에서 참여한 학생들은 화려한 분장과 퍼포먼스로 가장행렬을 채우며, 남녀노소가 하나 되는 추억을 만들어냈다.

16회 당시 개막식에 참석한 홍경모 문공부 차관은 축사에서 "호남예술제만큼 규모가 큰 지방 행사가 다른 지방에는 없으며, 이는 바로 호남인들의 높은 문화 수준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1회 대회에서는 1976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뽑힌 정경숙씨가 탄 오펜키를 선두로 한 가장행렬이 단연 화제였다. 특히 300여명이 참여한 광주수창국민학교팀 가장행렬이 눈길을 끌었다.

22회 대회는 석가탄신일과 겹쳐 불꽃놀이, 제등행렬이 함께 열리면서 흥겨운 축제의장이 됐다. 제자들의 참가비를 마련해준 나주 양산국고 정영두 교사의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광주의 아픔이 자리한 1980년에도 호남예술제는 함께했다. 제25회 대회는 5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연기돼 10월에 열렸다. 전남 농야학교 학생들이 초등부 군무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총 1만9천여명이 참가했다.

다음 해인 1981년 제26회 대회부터는 광주일보



광복 30주년을 맞아 광주 금남로에서 펼쳐진 '제20회 호남예술제' (1975년) 시가행진 모습.

〈광주일보 자료〉

주최로 새롭게 출발했다. 당시 군사정권의 언론 통제 폐해 조치에 따라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이 통합되며 창간된 광주일보가 예술제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30회 때는 그간 배출한 예술 인재들을 조명하는 '정상의 얼굴들' 초청공연을 개최했다. 김남윤 바이올리니스트, 서영화 피아니스트, 정애련 소프라노 등 정상급 예술가들이 광주시민회관 무대에 올라 예술제의 위상을 높였다.

31회 대회는 영광국민학교생 8명이 독창 부문 최고상 금, 은상을 휩쓸고 합창서도 금상을 수상해 화제를 낳았다. 영광국민학교는 32회 대회에서도 합창, 무용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21년만에 처음으로 지방 국민학교가 종합최고상을 가져가는 기록을

나눴다.

호남예술제는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교육과정 등을 반영해 변화를 거듭했다. 41회 대회부터 일반인 부문을 폐지하고, 초·중·고등학생 중심의 경연으로 특화됐다. 이후 음악, 미술, 작문, 국악, 무용 등 5개 부문으로 고정되며 집적인 향상을 꾀했다. 청소년그룹사운드 페스티벌(50회), 논술 부문(51회)이 신설됐고, 같은 해 유아 대상의 '새싹 그리기 축제'도 시작돼 매년 천여 명의 유아들이 미래 예술가의 꿈을 펼쳤다.

55회는 '매천아록'의 저자 황현 선생 순국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광주뿐 아니라 그의 고향인 광양에서도 대회가 개최됐다. 56회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실용음악 부문과 만화·일러스트 분야가 신설

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제로서의 외연을 다시 한 번 넓혔다. 62회 때는 광주일보 창사 65주년을 겸해 '정명화·손열음·신지아 트리오' 기념공연이 펼쳐졌다. 호남예술제 출신으로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3위에 입상해 이름을 알린 신지아 바이올리니스트가 참여해 1600여명의 관객이 모이는 등 화제를 모았다.

호남예술제는 70년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예술 꿈나무들을 무대 위로 불러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국내외 예술계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지역의 자긍심이 되었다. 앞으로도 호남예술제는 새로운 세대의 재능을 밝혀주는 등불로서, 예술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자라나는 무대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아티스트와 플로리스트의 '너를 위한 마음'

진허 작가·김주안 플로리스트, 5월31일까지 대담미술관

아티스트와 플로리스트의 콜라보.

작품을 창작한다는 관점에서 아티스트와 플로리스트는 동일한 가치를 지향한다. 예술품이 누군가에게 힐링과 울림을 선사하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그렇다. 심미적 아름다움 기저에는 누군가를 향한 귀한 마음이 드리워져 있다.

진허 작가와 김주안 플로리스트가 '너를 위한 마음'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 중이다.

오는 5월 31일까지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각각의 스토리를 담아 작품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여성의 삶을 나이에 비유해 표현해왔던 진허 작가는 이번에는 기존의 여성체를 뺀 채소로 엄마의 마음을 이미지화했다. 전시실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너에게 숲을 줄게' 시리즈로 기획한 신작들이다.

그는 "밭에서 키운 채소를 자식을 위해 나눠주는 엄마를 보며 '잘 먹지도 않는데 왜 먹으라고 가져다 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그런데 그 모습이 어느새 내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진허 작가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 모든 엄마의 마음에 담긴 사랑이라고 했다. 풍성하고 탐스러운 각양각색의 채소들은 보는 이에게 엄마의 마음을 읽게 한다.

김주안 플로리스트는 꽃다발, 꽃바구니로 수렴되는 기존 장식의 틀을 깨고 채소와 꽃이 어우러지는 작품을 연출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화



콜라보 작품 '너를 위한 마음'

려함을 능가하는 담백함과 조화의 미가 인상적이다.

그는 "진허 작가의 '너에게 숲을 줄게'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당근, 브로콜리 등을 꽃과 함께 콜라보했다"며 "꽃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해 보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아영 부관장은 "서로 다른 두 영역의 콜라보는 독창적인 창작의 언어를 환기한다"며 "꽃이 지고 채소가 되어가는 과정을 심미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제7회 감성인문학 학술대회'

25일~26일 김남주기념홀

오늘날의 인문학은 고전적인 인문학과 달리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접촉해 그 영역을 점차 확장해가고 있다. 인문학을 매개로 사회의 당면 문제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제 문제들까지 사유하고 실천의 근거를 모색하기도 한다.

'기후위기', '도시 커먼즈', '폐허에서 발견하는 다종의 세계' 등처럼 최근 인문학의 주요 쟁점이 되는 담론을 모티브로 인문학 범주를 확대하고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인문학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정명중 교수·사진) HK+2 감성인문학연구단이 25일~26일 '제7회 감성인문학 학술대회'를 연다.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로컬에서 새로운 인문학을 상상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



제2세션은 '공감장과 (트랜스)로컬리티: 장소, 매체, 서사'를 주제로 '소리와 로컬리티' (최유준 전남대) 등이 발표된다.

이튿날 26일 진행되는 제3세션은 지역학 신진 연구자들이 참여해 '호남학의 미래 세대'를 주제로 발표를 하는 시간이다. '보성 죽산안씨 가문의 장기지속과 안방준' (박미향 전남대 호남학과), '웹드라마 제작을 통한 로컬브랜딩 사례 고찰-여

번 학술대회는 모두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1세션은 '포스트 휴먼 시대 감성인문학의 쟁점과 미래'를 주제로 '도시적 커먼즈의 관점에서 돌봄을 재구성하기' (한경애 서울대) 등이 발표된다.

제2세션은 '공감장과 (트랜스)로컬리티: 장소, 매체, 서사'를 주제로 '소리와 로컬리티' (최유준 전남대) 등이 발표된다.

수시 관광웹드라마를 대상으로' (정지운 전남대 호남학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속 가능성 부분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사례를 듣고 논의하는 시간도 있다.

제4세션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논하다'를 모티브로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이 전하는 실천 방안 등 다채로운 사례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정명중 호남학연구원 원장은 "이튿날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감성인문학의 이론적 확장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기획됐다"며 "감성인문학이 대학 내에서만 국한되는 한문적 영역이 아닌 대학 밖의 다양한 사회 분야와 접목해 지역과 세계의 관심사를 사유하고 비전을 모색·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변지유, 2025 봄·여름 패션 트렁크 쇼

25일 변지유 샵 1층

패션디자이너 변지유(변지유 부띠끄 대표·사진)씨가 25일 오후 2시 변지유 샵 1층(광주시 동구 제봉로 118)에서 2025 봄·여름 패션 스타일링을 위한 트렁크 쇼를 개최한다.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패션쇼에

서는 올 봄·여름 시즌에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수퍼모델 박돌선씨가 디렉팅을 맡아 자신만의 차별화된 패션 스타일 등에 대한 노하우도 소개한다.

변씨는 파리 프레타 포르테, 밀라노 컬렉션 등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지역의 대표적인 패션디자이너이다. 또한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디자인 산업 발전 유공자상을 수상했으며 (사)문화성회 장학회를 10년간 이끌면서 여성들의 인권과 장애우들을 위한 나눔봉사활동에 앞장서왔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